

유조차 전복 병커C유 7000리터 유출

전주-군산 개정교차로 부근서 사고 발생 ... 흡착포·톱밥 이용 방제작업

군산에서 유조차가 전복돼 병커C유 70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24일 오후 12시50분 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개정교차로 부근에서 군산에서 전주 방면으로 달리던 유조차가 넘어졌다.

이에 따라 유조차에 적재된 병커C유 7000리터가 흘러 경찰 등이 출동해 흡착포와 톱밥 등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 운전자 성모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나자 유출된 병커C유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인근 29번 국도를 막아 2시간 이상 차량을 통제해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운전자 성씨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5>